

## 동물과 식물의 다른점 알기 체험놀이

###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길잡이

- 구분: 시작 단계
- 주제: 동물과 식물
- 형식: 활동적
- 계절: 사계절
- 대상: 초등학생
- 장소: 공원, 숲, 운동장
- 무엇을 배우나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크게 식물과 동물로 구분된다.

식물과 동물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다르게 발달해왔다.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숲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식물과 동물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보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각종 동식물 이름이 적힌 낱말카드

-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진행 방식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으나,

마지막 단어를 동물 이름으로 대신한다.

2. 마지막 단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닭!” 이면 모두 제자리에서 닭 흉내를 낸다.

3. 술래는 그 가운데 동물 흉내를 가장 못 내는 사람을 지적할 수 있다.

4. 같은 방식으로 낱말카드에 적힌 동식물 이름을 부르며 놀이를 진행한다.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참나무! (움직이면 안 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리! (오리 소리까지 흉내 내며 움직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나무!(‘소’ 흉내를 내려다가 ‘소나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없다.)

5. 동물과 식물 이름을 번갈아 배열하여 자연스럽게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을 알도록 한다.

6. 이름을 외칠 때 ‘뒤집어진 거북’, ‘씩어가는 소나무’ 등 수식어를 붙이면 더 재미있다.

- 이런 질문 어때요?

1.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2. 생태계에는 동물과 식물 이외에 어떤 생물이 있을까요?

- 참조하세요.

동물과 식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물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부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물과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식물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 오늘날 60억 이상의 대형 포식자가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가 기형적으로

발달해버린 상황에서 식물이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영양을 스스로

공급받는다라는 점은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동물이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는 없지만 빛 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생태계가 식물과 동물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소위 고등한 단계에 이를수록 서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르지만, 하등한 단계에서 동물과 식물은 뚜렷한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성이 있다. 단세포식물과 단세포동물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식물계와 동물계를 동시에 오가는, 식물인지 동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생물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